

시 부문

연초록, 순정

- '죽녹'의 휘파람에 담합

민병훈

들어보았나요

하늘대는 맷가지들 서로 부딪쳐 휘파람을 불던 곳
그대 처음 달을 듯 말 듯 손끝에 느낀 바람의 촉감

사늘한 기운이 볼을 스칠 적마다 저절로 발개진 볼
햇잎 사이를 통과한 햇빛에 손바닥을 담그려다가
서로만 결눈질하며 들끼고 웃던 짤막했던 순간들

그해 담양의 봄, 뭉근하게 펴지던 온기를요

또는

들어보았나요

연초록 잎새들로 아기자기하던 그 야트막한 비탈
흰나비 몇 서성대다 그늘을 찾아 숨죽여 앓던 곳

속살대던 바람이 어느 순간 제 숨을 고르고 나면
시리게 맑은 눈가에도 물빛은 점점 더 투명해져
죽녹의 피리음을 염아 그 숲에 내던지던 순간을

그해 담양의 봄, 멍울처럼 편 가슴속 죽순을

다시

들어보았나요

숨 가쁜 출근길 전철 안에서 유튜브 클립을 열다
무심코 마주치게 되는 대숲 속 푸른 창공을 열면

비로소 그대 귓가에 와닿는 그해 숲 속의 밀어들
죽녹의 휘파람으로 사각대는 바람의 수줍음을
그대 귀에만 들리게 만든 머뭇거리는 고백을요

그해 담양의 봄, 둥그렇게 흐르던 구름처럼요

(그대가 제 인생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처럼)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시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시단 발전에 작지만 보탬 역할 '발현'

어설픈 꿈자리가 뒤승승했다며 갓 익은 김치 한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녀 앞에서 무얼 먼저 맡아야 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비로소 꺼낸다는 게 “나 등단했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제가 맞을 겁니다. (들꽃 같은 아내)를 향한 일종의 현사입니다)

느닷없는 당선소감 몇 줄을 쓰려다 기어코 잠든 강아지를 깨워 새카만 두 눈을 한참 쳐다보곤 이내 웃었습니다. 그 만큼 착하다 착한 아이가 제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게 축복인지도 모르니까요.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헌사이기도 합니다)

‘시와 지성’ 동인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회’에서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누누이 “부끄럽지 말자”며 후배들을 다독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백사’라는 이름을 갖고도 많은 인연들이 아직까지 이어져온 건순전히 제 게으름과 무능을 너그러이 이해해 준 사람들은 덕택이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 ‘생활도서관’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병훈

제가족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그 인연들, 동기들과 선후배 그리고 동인 내지는 동지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를 쓰다가 죽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시인이라고, 그 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기쁨을 함께 할 인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름들 앞에도 수줍은 인사 몇 마디를 남겨놓을게요. 늘 부족함을 알고 늘 배우면서 늘 겸허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항상 승승이었으며 심지어 더러는 반면교사 역할까지도 해온 대한민국의 모든 시인들께도 약소한 보답을 드릴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시단의 발전에 미소하게 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데 제 생을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과 신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솔직함은 세련됨 넘어서는 미학 된다



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물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편지’와 ‘연초록, 순정’, 최종 결정을 하는데 난해함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편지’는 연필로 새긴 따뜻한 인간의 약속이 설렘을 줬다.

내가 그 약속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었다. 시가 인간에게 꿈과 약속을 선물할 수 있다면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연초록, 순정’은 편하고 풋풋한 언어로 고향 마을의 추억을 새긴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불러들인 대숲 속 푸른 창공은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따뜻한 용기다. 그대가 제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아마추어적인 진술이 최종 당선작을 결정짓는 주기 됐다. 솔직함은 종종 세련됨 넘어서는 미학이 될 수도 있다. 대숲 속에서 바라보는 푸른 창공 같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의 주인이 되길!

소설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관념 대신 몸에 밀착하는 소설 쓸터

습작 하는 동안 변비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보니 ‘똥’을 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압니다. 씹어 삼킨 음식물이 위를 거치고 장으로 흘러 서로 부대끼며 꾸역꾸역 내려가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세상 나오는 일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요.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 애속합니다. 그럴 때 속담 하나를 떠올립니다. “방귀가 찾으면 똥 쓴다”라는 비유뿐 아니라 날것의 의미로도 촌철 같은 선인의 혜학에 잠시 웃었습니다. 시원한 마중물 한 바가지 마셨으면 하면서요.

글을 쓰는 일도 똥을 누는 일과 참 비슷합니다. 설익은 문장들이 뱃속에서 우르르 광활 소리를 내다 어찌어찌 밀려 내려갑니다만 이렇게 소설이 되어도 언제 세상 빛을 볼지 모릅니다. 매끈한 황금 똥을 꿈꾸며. 방귀 한 번. 징조라도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오랜 정체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지요. 첫 방귀는 생 애너지가 다시 흐른다는 가장 정직하고 경이로운 신호라는 것을요.

마중물을 부여주신 그래서 정후를 심어주신 심사위원님과 광남일보 관계자



차현숙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부지런히 글을 먹고 소화시키며 생산하겠습니다. 읽고 난후에는 말의 생기가 남아 몸 너머, 소설 너머, 우주를 상상하게 하는 황금 같은 소설을 쓰겠습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소박한 돈으로 풍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듣는 내내 그 점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수업을 있는 마지막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념으로 수업을 이끌어 주신 남산도서관 소설창작반 박경희 작가님과 문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설만 읽는 아내를 무용하다 탓하지 않고 귀하게 바라봐 준 남편. 해운 씨에게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당신 그들이 있어 편히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배우 몸짓 대도약하는 활자처럼 읽혀

평론 투고작이 예년의 두 배 이상 많아 극적으로 12월 29일에야 전화가 올 줄 몰랐다.

축하해주신 글을 가르쳐주신 모든 분을 구태여 호명하지 않겠으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웠던 마음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시면 나도 멀리서 이내 숨을 보내고 싶다.

특히 당신, 나와 손잡고 이 길을 걷고 있는 네게 말이다.

여섯 번째 겨울을 함께 견딘는 동안 무수한 탈락 소식에 조용히 감응해준 오직 한 사람.

나는 오늘을 빌려 감히 그에게 “소중한 건 언제나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만 같으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응원하고 싶다.

내가 무수히 글하며 살아왔더라도, 한번만 사랑하는 이 앞에서 이게 진리인 양 교만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구할 자는 오직 나뿐이지만 때론 서로가 힘이 되었노라” 귓가에 읊조리고 싶다.

가능성을 봄주신 심사위원님과 광남일보 관계자, 문화부에 감사 인사가 늦

었다. 당초 문학평론을 전공했지만 공연 비평으로 등단에 도전한 건모험이자 용기였다. 때론 무용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무언극도 한 편의 시가 되는 걸 느꼈고 배우들의 몸짓은 대도약하는 활자처럼 읽혔다. 나도 평론으로서 사유를 체화하고 탐미하는 저 공연예술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보니 참. 어깨에 쌓인 녹나가는 나의 삶도 물비린내 기득한 지하공연장에서 가까스로 상연하는 어리숙한 초연작 같다. 오늘의 당선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해야만 이 값진 ‘공연’이 재연을 넘어 살아가는 내내 무대에 오를 거라 믿는다.

이제 나는 수년간 부르른 호평에 보답한 겨울의 은유가 조금은 좋아졌다. 눈내리는 그것은 시리고 아름다워. 혹독하지만 품 안에 든 자를 언젠가 거두어 주므로…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난 평론 응모작들이 반가웠다. 문학평론은 그 종결 반 정도였다. 문학평론의 경우, 기존 비평들의 해석과 차별화되는 입사각은 부족해 보였다. 비-문학 장르 평론의 경우, 현재 세계를 신유물론 철학으로 재사유하는 메타적 문법의 글들이 많았다.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는 만화시리즈를 통해 AI 시대의 휴먼니즘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짚었던 글,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한 무지컬과 영화를 교차 검증한 글은 인간세계를 복시록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간-행태를 비판의 심문장에 회부했다는 측면에서 값진 성과들이었음을 밝혀둔다.

김지원 씨의 ‘만화 체인소 맨의 탈-경계적 잡식성’은 앞선 아쉬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글이었다. 작품 분석과 이론의 적용이 과잉되지 않으면서 비판의 논점을 유지하는 긴장감도 놓치지 않았다. 시대와 불화하는 해당 장르의 기형적인 소비구조를 비판하는 비평가적 안목도 인상적이었다. 그 중 식인 행위에 대한 담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비평으로 확장된다.



되어도 충분해보였다. 다만 해당 담론이 다른 장에 더 어울리 보이는 구성의 어긋남과 글의 주제를 보편성이 차원으로 설득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유익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고심 끝에 최지안 씨의 ‘몸의 언어가 자신만의 인도를 관찰할 때: 광주시립 밤문화 DIVINE’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글의 미덕은 작품의 공간 언어와 물질 언어들이 정치적 정동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몸 언어의 폐권’을 반-언어적으로 표현한 극의 (무)언어로 각인한 데 있다. 다만 해설의 변증법과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사용한 설명은 좀 더 치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장르를 획단할 것을 믿으며 축하의 말을 전한다.